

Title : “진정한 선물” *“Real Gift”*

선물,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이게 된다. 선물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떻게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선물의 의미와 목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해 관계로 책상 밑으로 건네는 것은 [뇌물]이 될 것이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지만 선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책상 위에서 주는 것이야말로 [선물]일텐데, 뉴스를 들으니 사람들이 일년중에 구입하는 선물중에 뭐니 뭐니해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당연 큰 선물이고 많은 비중의 돈을 들여서 선물을 구입한다고 한다. 하긴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어떤 성자의 탄일로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며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 각 백화점이나 온라인 마켓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몇개월 전부터 특수 대목을 노리며 대단한 전략과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광고들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선물 구매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1. 누구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명단을 작성한다-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할 계획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한다. 잊지 않을 것은 불우한 이웃(단체나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일년내내 수고하는 직업인이나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명단이 작성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단체에 기부할 경우 충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혹은 남들이 많이 참여하는 참여도를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단체가 얼마나 믿을만하게 기부금을 사용,운영하는지를 자료를 찾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유사한 이름, 슬로건 등으로 기부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여 거둬들인 소중한 기부금이나 물건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름만 불우 이웃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2. 그들 각자에게 적당한 선물은 무엇인지 구분한다- 나이와 성별, 취미나 직업에 따라 선호되는 물품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아이템을 정해 본다. 어떤 경우에는 받은 선물중에 중복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본인보다 더 필요할 사람에게 재선물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럴 경우 그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이 깨끗하고 포장된 상태로 해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3.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받은 이들이 감동할 수 있을지 마케팅 조사한다- 많은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하려고 하게 될 경우 고가의 선물이면 마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의 선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물일 것이다. 또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크리딧 카드를 쓸수 있다하여 많은 빚을 져 가면서 선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알뜰한 재정관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몇 군대를 비교 검토해서 그물건의 값어치가 치러질 수 있는 최소 적정선을 찾는 발품을 파는 일도 알뜰 구매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연말 연시에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한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주고 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계절에 우리는 정작 계절에 주인공이자 감사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빠트려서는 안 될, 아니 선물 명단에 제일 먼저 꼽아 넣어야 할 이름으로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분께 우리는 무엇으로 선물을 할 것인가? 어떤 선물이 진정한 선물일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선물해야 그분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실까 말이다.

마(Mt.)2:11 “엿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분은 돈이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뭐든지 다 있으신 분이시기에 억지로 하거나 남의 이목을 위해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것이라고 하셨고, 가서 각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과부의 두렵돈을 칭찬하신 주님이시다. 2018 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일을 세어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나누면서 갑절 이상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